



광주·전남 선수들 선전 한국 목표 달성 밑거름

제13회 베이징장애인 올림픽에서 광주·전남출전 선수들은 8명(광주 6명·전남 2명)의 선수가 4개종목(탁구, 사격, 역도, 양궁)에 참가해 금1, 은2, 동1개의 수확을 거두며 대한민국이 당초 목표했던 순위달성에 기여했다.

첫 메달은 '완도 효녀' 이윤리(여·34·전남일번) 선수가 한국에 첫 금을 선불한 사격에서 나왔다.

이윤리는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이 없어 초조하던 대회 4일째인 지난 9일 화약 소총 50m 3자세에서 결선평결 676.9점으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윤리는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이자 패럴림픽 기록인 579점을 쏘아 1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결승에서도 한 발도 8점대를 맞추지 않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합계에서도 장애인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신기(神技)를 선보였다.

완도여고 시절 응원단장을 할 정도로 패럴림픽 이윤리는 고교 졸업 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1997년 7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흉추 골절상을 입어 하반신을 못쓰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재활치료를 시작한 탁구를 5년 정도 했었고 지난 2006년 초 대전 보훈병원에 입원 중 사격에 입문, 2년

이윤리 사격 첫 금 포함 금1·은2·동1개 획득 장애 극복 투혼 돋보여

만에 세계적 스타로 성장했다.

특히 이윤리는 특전사 저격수 출신인 남자친구 이준희씨의 권유로 총을 잡게 된 입문부터 훈련과정까지의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11일에는 탁구 개인(장애 1등급) 조재관(31·광주광역시)이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에서 오스트리아 안드레아스 베베라를 맞아 선전했지만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성중 시절 태권도 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출전, 동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조재관은 고1학년때 수영장에서 다이빙 중 경추손상을 입어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꿈을 접었으나 장애인 탁구를 시작, 지난 제12회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 탁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

15일에는 김란숙(41·지체2급·광주광역시) 선수가 이화숙, 김기희 선수와 함께 출전한 여자양궁 리커브 단체전에서 세계최강 중국을 맞아 선전했으나 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 윤 리> <조 재 관>



<김 란 숙> <김 공 롱>

같은날 탁구 남자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한 김공룡(지체1급·40·광주광역시)·조재관은 오스트리아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추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13회 장애인올림픽 11일째인 16일 오전 베이징 올림픽그린 내 주경기장인 '귀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열린 남자육상 100m T53 예선에서 조지 조슈(미국·가운데)가 역주하고 있다.

남탁구 '만리장성' 넘었다

단체전서 중국 3-1 꺾고 금 획득

한국 남자 탁구가 만리장성의 벽을 넘어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경기스코어 3-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탁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 한국은 이날까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며 금메달 9개를 기록 중인 튀니지를 제치고 13위로 올라섰다.

“정신력·기술력 모두 문제”

이회택 축구협 기술위원장, 허정무호에 일침

“대표선수들의 정신력과 기술력이 모두 아니다”

이회택(62)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최근 침체에 빠진 태극전사들의 해이해진 정신력과 기술력 부재에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회택 위원장은 16일 과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기술위원회와 축구대표팀 코칭스태프 간 회의를 마친 뒤 “대표팀 선수들의 정신적 무장이 부족했다. 선수들 모두 대표팀의 긍지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과 치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에서 반드시 승점 3을 쟁겨야 했지만 비기면서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대표팀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선수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술위원들과 코칭스태프의 만남은 최종예선을 시작한 대표팀의 문제점과



허정무(오른쪽)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16일 열린 기술위원회에 참석해 이회택 기술위원장을 비롯한 기술위원들과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건의사항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뼈 아픈 지적들도 많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표팀 선수들의 결여된 동기 부여에 대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끈끈한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대표팀의 정예화를 이미 지적했었지만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선수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천수(수원)와 조재진(전북) 등이 주전 경쟁에서 앞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기술이 떨어지면서 정신력까지 느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국내과는 물론 해외파 선수들도 공통되는 현상이다. 지금보다 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허감독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박주영(모나코)의 대표팀 재발탁과 지난해 음주 과음으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운재(수원), 이동국(성남)의 사면에 대해선 다소 신중할 입장을 지켰다.

그는 “박주영의 재발탁 문제는 단정할 수 없다. 이번 1경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코칭스태프와 기술위원을 현지에 파견해 2~3경기를 지켜보면서 관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정무호 해외파 점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의 첫 결승을 무승부로 시작한 허정무호가 다음 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전을 앞두고 해외파 점검에 나선다.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16일 과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회의를 가진 뒤 “박주영(모나코)의 대표팀 재발탁을 놓고 기술위원과 코칭스태프를 현지에 파견해 2~3경기 정도 관찰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이동국 전북 조재진 부산 안정환 수원 이천수

오늘 골잡이 맞대결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골잡이들의 자존심 건 맞대결 무대가 마련됐다.

이동국(성남)-조재진(전북), 안정환(부산)-이천수(수원)가 삼성하우젠컵 2008 조별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만난다.

오랜만에 찾아온 스타 플레이어 간 격돌인데다 소속팀들 각각 조별리그 1, 2위를 달리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바라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동국과 조재진은 17일 오후 7시 성남1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조 9라운드 출격을 준비 중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전북이 4승4무패, 두 경기를 남겨놓은 성남은 5승1무

2패로 나란히 승점 16점을 쌓아 골득실차로 1, 2위에 올라 있다. 3위 울산(3승3무2패)과는 4점 차라 전북-성남전 승자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A조에서는 이날 오후 8시 부산 아사드 주경기장에서 안정환과 이천수가 대결한다.

이천수의 수원은 5승2무1패(승점 17)로 1위, 한 경기를 더 치른 안정환의 부산은 5승4패(승점 15)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수원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은 두 경기를 남겨놓은 경남(3승3무2패)에 3점차로 쫓겨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수) ▲2008 메이저리그(보스턴 : 탬파베이) (07 : 50·Xports)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요코하마) (17 : 50·MBC ESPN)

▲2008 프로야구(롯데 : 한화) (18 : 10·SBS스포츠) <SK : 두산> (18 : 20·KBS N SPORTS) <SK : 두산> (18 : 20·Xports) <KIA : 히어로즈> (17 : 50·MBC ESPN) 18일(목)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1차전(맨체스터 Utd : 비야레알) (03 : 35·MBC ESPN)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명성공인중개사

광신구 흑석4거리 해림공원방향 100m지점 부동산 중개전문 대표 강 의 원 ☎(062)959-4988

델리몬스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201동 정문앞 전문통기스전문점 돈가스 오일렛(라이스) 덮밥류, 볶음밥, 전회주문식 신속배달 ☎(062)673-2229

B-f

동구 광신동 구 그린드호텔 미니스튜디오 플랫슈즈취급전문 아르바이트여직원모집 대표 한 유 정 ☎(062)233-8580

교보반점

북구 누문동 교보B/D뒷편 중화요리전문 대표 범 승 규 ☎(062)514-1817

대복식당

북구 운암동 동문세마을금고옆 생삼겹살, 돼지머리고기, 새끼소시, 창구이 국밥, 곰창전골전문 ☎(062)521-6155

대리영양관리·동태찌개집

순천시 금강조례동 순천제일병원앞 대리영양관리 동태찌개, 찌전문점 대표 김 옥 주 ☎(061)725-6210

청해진의꿈

북구 양산동 광주 희망병원앞 한국 최고의 해물탕 전문점 대표 김 임 복 ☎(062)576-0078

에덴직업소개소

남구 백운동 프리드호텔 건너편 문중, 벌초대행전문 홀씨빙, 식당 주방장, 참모, 토목철거, 모지상담 ☎(010)2625-0404

카리비안치킨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201동 정문앞 평양분말(볶음)에 달걀, 후라이드양파, 닭, 닭, 전회주문식 돈가스, 신속배달 ☎(062)675-9222

아리따움금남지하직영점

동구 금남로1가 지하상가 만민광장옆 피부진단, 메이크업, 매장문서 무료서비스 이모레퍼시픽 화장품 취급전문점 ☎(062)236-0348

석암들술밥

북구 문흥1동사무소 건너 향토음식 전문점 ☎(062)262-2222

멜전통태극마사지

광신구 월계동 첨단 엔하이오호텔옆 최고급인테리어시설 1인1실룸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062)972-3605-6

동원샘물(한리대리점)

북구 중흥3동 안보회관 뒷편 정수기, 냉수기 판매및상담 대표 김 천 수 ☎(062)363-0670

본죽&비빔밥카페

동구 충장로1가 무등극장입구 본죽과 비빔밥이 만나 premium 매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매뉴포장 ☎(062)225-6888

푸른건강원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편미트 맞은편 양파즙, 배즙, 포도즙, 흑염소 개소주, 봉어즙, 각종과일즙 ☎(062)512-2752

달리는포장마차&미니족집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201동 정문앞 달걀, 통집, 곰창볶음, 돼지갈래기, 낙지볶음 미니족 전회주문식 신속배달 ☎(062)672-7772

밤실골의원

북구 두암동 청어맨션 건너편 귀대용제약측 안과, 생개풀, 사마귀, 점 진료전문 보톡스 상담환영 ☎(062)265-0627

자연산할어전문 "대가"

서구 풍암동 윤리중학교 정문앞 직장인을 위한 점심특선 자연산(하모탕, 회진물회) 5,000원 ☎(062)375-3388

박일규외과

광신구 풍암동 3동 3층 구 모비비시우주재활센터 외과, 정신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 비만 진료전문 ☎(062)971-3346

진경글비

북구 중흥3동 무등재시계에서 북구청앞길로 전통영양글비 원산지법성포 가공업체 대표 박 영 길 ☎(062)521-5831

한울이용원

서구 광현시장 동사무소 옆 귀송원대학옆 컷트, 스포츠, 염색전문 모범업소 대표 김 장 호 ☎(062)362-8051

포토에셀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건너편 사진영화가족사진, 이가사진, 웨딩포토, 야외촬영사 남구 화서동 가족전문사진, 개업기념0% 할인행사 ☎(062)652-4747

한국약손의명가

봉선동 모이2차정동 4거리앞 부분민시지, 일반민시지, 전담민시지, 스트레스 혈액순환, 피로회복, 만성두통, 고혈압치료 ☎(062)655-2257

뽕치매건강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우체국 맞은편 미용, 교배, 분향, 호텔 각종어견용품 오픈기념 9월19일까지 10% 할인판매 행사중 ☎(062)430-4722

미가

광신구 선정동 하이마트쪽 선정목욕탕옆 건물 생삼겹살, 냉면전문 대표 최 윤 영 ☎(010)6660-2043

골골이홈데지식육식당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옆 KT건너편 홈데지 생삼겹살, 오리족, 현생고기 전문 대표 최 길 호 ☎(062)351-8292